

## 기획 특집

### 불온과 섹슈얼리티

**이혜령** |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

-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최수현** |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실행(失行)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내외법(內外法) 위반을 중심으로-

**김윤정** | 식민지 시대 관습(慣習)의 법제화와 문학의 젠더 정치성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최지현** | 1940년대 국가의 여성 동원과 불온의 정치학

**전지니** |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1970년대 영화 ‘특별수사본부’ 여간첩 시리즈에 대한 고찰-



#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

-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이혜령\*\*

## 차례

1. 신자유주의 한국의 1990년대 노스텔지어와 성 정치
2. 근대성의 총아로서의 신여성 연구와 딜레마
3. 일본군 '위안부'와 그 증언을 둘러싼 해석의 입계
4.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에 대한 제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와 현재의 시간성을 교직하며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식민지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를 되돌아보는 데 있다. 1990년대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와 같은 TV드라마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자본주의적 사회 환경을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간의식을 목가적 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 개인의 성장은 대학입학을 위한 서울로의 상경, 낭만적 연애, 직업을 얻는 것, 첫사랑과의 연애를 통해 그려진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예한 삼포세대에 관한 담론, 일베 저장소와 같은 웹사이트에서의 여성혐오 담론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문화적 텍스트는 목가적 자본주의의 불가능성, 즉 그 폐허의 산물이다. 신여성 연구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4).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데, 이 시기는 여성주의가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또 문화적 텍스트로 발전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특히 신여성 연구는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함께 80년대 급부상한 마르크스주의적 변혁패러다임이 폐기되면서 ‘근대성’ 연구의 붐에 있어 선편적인 역할을 했으며, 무엇보다 당대 민족주의의 억압성을 비판하는 담론에 조용히는 효과를 낳았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매춘’과 ‘성폭력’을 이슈로 제기된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제기되긴 했지만,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신여성과는 다른 위상을 지니게 된다. 민족주의는 정대협에 의해 주도된 위안부 운동의 성격을 비판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민족주의 비판이 위안부 피해자의 고백이나 증언이 애초부터 ‘상상의 공동체’를 향해 이루어졌음을 환기할 때 과도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신여성이 당대에서부터 다설(多說)의 대상이 된 반면, 위안부는 오랫동안 침묵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지연에 개입된 문제는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식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지배는 종족적으로 이원화된 식민지 사회의 친밀성을 인종화된 언설과 정치를 통해 재구축하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이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는 이를 광범위하게 논증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핵심어 : 섹슈얼리티, 신여성,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섹슈얼리티, 목가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일베, 1990년대, 민족주의, 근대성, 섹슈얼리티의 인종화, 친밀성

## 1. 신자유주의 한국의 1990년대 노스텔지어와 성 정치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본격화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sup>1)</sup>에 대한

1) 1990년대부터 여성학과 국문학, 사회학 등 여러 분과학문에서 섹슈얼리티 연구가 다기하게 전개된 추이를 RISS의 검색데이터를 대상으로 통해 보여준 다음의 글을 참조. 박이은실,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sexuality study) 재/구축을 제안하며」,

역사화를 시도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여기서 역사화란 특정한 지식생산에 개입되거나 내재된 시간성과 규범, 감정구조 등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 생산된 지식의 제한들(limits)을 부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제한은 한계나 결함을 뜻한다기보다는 들고나는 행위가 겹쳐지고 다른 장소로 인도하고, 잠시 멈춰설 수도 있는 문지방을 뜻한다고 말해두겠다. 우선, 지금-여기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논한다는 것은 현재와 1990년대, 식민지 시대라는 시간성을 의식적으로 서로 교차시키고 연관된 것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그 연관이 진부하게도 연속이나, 아날로지 같은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음들을 떠올려보며 이 글을 쓰기로 했다. 근대성이 한국학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던 1990년대에 대학원 학위과정을 시작하여 이천년대 초반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기까지의 과정은 한국근대문학 연구 분야에서 ‘근대성’의 화두와 함께 각각 그 기원과 근대성의 파국적인 주체화과정을 밝힌 근대계몽기연구와 일제말 국민문학에 대한 연구, 1930년대 경성의 모더니티와 관련한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대신 프로문학 연구가 뒤로 밀려나는 과정과 나란했다. 또한 1990년대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흐름과 함께 성장한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2000년 한국여성문학학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돌이켜보니 내 논문의 주제는 무엇보다 서구 사회주의권의 해체라는 배경 속에서 80년대 폭발했던 정치투쟁이나 이론투쟁이 이완되면서 대두된 (식민지) 근대성 연구 붐 속에 있었다. 그 당시 섹슈얼리티는 근대의 정체성

---

『여/성이론』 25, 여성이론연구소, 2011. 한편 한국의 식민지 시대 여성문학, 젠더 ·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사 검토로는 다음을 참조. 김주리, 『여성주의 연구방법과 한국근대소설 속 새로운 자아의 탐색』, 『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 이영아,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주지하듯이, 일제 말 동원의 프로파간다이자 기록이기도 했던 ‘국민문학’에서 징병과 학병, 징용을 다루어져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다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섹슈얼리티 연구에서 문학이 시사하는 바는 제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주체성)과 서사의 문제로 접근되었다면,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섹슈얼리티의 ‘정치경제’<sup>2)</sup>에서 주목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빠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1990년대가 노스텔지어의 시간으로 상상되는 문화텍스트들의 출현이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최근 케이블 TV의 드라마로 높은 시청률과 화제를 낳았던 <응답하라, 1997>(이우정 극본, 신원호 연출, 2012), <응답하라, 1994>(이우정 극본, 신원호 연출, 2013)는 1990년대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켰다. 짧았던 여름밤의 꿈이었지만 아마도 1990년대 한국사회가 근대 이후 가장 목가적인 시대로 회고되고 있다는 데서 연유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목가, 목가적 자본주의는 형용모순이다. 목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소박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목가적 자본주의란 자본주의라는 삶을 에워싼 장막이 목가에서처럼 사람과 충분히 조화를 이룰 만한, 비적대적이고 포용력 있는 자연인 것처럼 펼쳐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상은 드라마 제작자들의 특정한 계층적, 세대적 경험에 기초한 것만은 아니다. 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라는 탈냉전의 상황은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분출했던 정치투쟁과 이념투쟁의 장을 사회적 시계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낳았으며, 그 사이 뚜렷하게 부상한 자본주의의 소비문화가 개인성과 정체성의 형성과 표현 기제로 이해되는 담론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2) 이는 포스트모던 이론의 영향에 따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론이 종종 물질적인 현실보다 담론, 재현, 정체성 문제에만 강조점을 두는 경향에 대한 데니스 올트먼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광범한 논의를 위해 ‘정치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경제적 재구조화와 더불어 문화적·상징적 변화를 고려하고자 했다. 이는 ‘세계화’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을 환기한다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데니스 올트먼, 이수영 역, 『제3장 성과 정치경제』, 『글로벌 섹스』, 이소출판사, 2003 참조, 85~118쪽.

3) 조한혜정은 당시 소비문화를 정체성의 표현 문제로 유연하게 바라보았지만, 돌이켜보면 88년 즈음부터 시장이 사회와 삶을 장악하는 신자유주의의 문화가 들어와

이들 드라마에서 상품의 성격이 또렷해진 대중문화의 산물인 아이돌 팬덤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사회적이고 일상적 영역의 규범을 초과한 열정 혹은 일탈의 성격을 띤 하지만 성장서사를 교란시키지는 않으며 그것을 보충하는 기제, 즉 사회화의 기제인 문화의 자격을 얻는다.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성장서사는 대학입학과 졸업, 취업, 그리고 낭만적 사랑의 성취로 이어진다. <응답하라 1994>는 전작보다 성장서사의 세속적인 기반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녀의 사랑의 성취는 아파트 집들이로 표상되는 안정적인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집들이에는 하숙집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대학 친구들이 촌놈 티를 벗은 말쑥한 옷차림의 샐러리맨으로 등장하여 이들 모두 서울의 삶에 안착한 것으로 제시된다. 어쨌든 어린 아들을 사이에 두고 추억을 이야기하며 잠드는 부부의 침실 장면에서 끝나는 드라마는 이상과 현실-여기서 이상과 현실은 친밀성의 영역인 가정으로 수축된 것이기는 하지만-이 행복한 일치를 이룬, 중산층 가정의 우아한 세계를 보여준다.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청한 TV프로그램이 월드컵 축구경기라는 것과 이 침실을 오버랩시켜 본다면, 경쟁의 세계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하는 친밀성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중 하나에 인종이 추가되어 있음을 추론케 한다. 이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배치한 지방색이란 진정 배타적으로 민족적인 것이었다. 목가적 자본주의라는 상상의 조건이 그것의 불가능성에 있다면, 이 세계는 소원성취적인

---

있었다고 지적한다. (김향·이혜령, 『조한혜정과와의 인터뷰』, 『인터뷰 : 한국 인문학의 지각변동』, 그린비, 2011, 136~137쪽.) 여성주의에 대한 조한혜정의 이러한 회고는 새삼 문화를 키워드로 정체성정치를 주창한 여성주의 제2의 물결에 대한 낸시 프레이저의 통찰을 환기시킨다. 낸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여성주의 제2의 물결은 정치적 관심을 계급 간 분배 문제에만 국한시켰던 경제주의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변형시키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나 문화에 몰두한 이 국면은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의 압력하에서 국민국가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가 해체되어 나가는 보다 폭넓은 역사적 상황에 부합한 것이었다.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역, 『6장 여성주의 상상력에 대한 지도 그리기』,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176~183쪽.

꿈의 세계이다. 이 드라마가 유발시킨 노스탤지어는 지금-여기의 세계상에 반 넘어 기대어 있다. 1997년 IMF위기로 한국정부가 받아들여지게 된 신자유주의적 변환 프로젝트는 경제적 과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삶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개인의 나날의 삶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은 진보와 성장의 비전이 아니라 전략과 파국의 공포,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출현한다.<sup>4)</sup>

한 세대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셈해진 세대의 출현-더불어 X세대, N세대니 하는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상징성 없는 세대 규정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2007년 우석훈과 박권일에 의해 정의된 의해 '88만원 세대'는 얼마안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로 설명되었다.<sup>5)</sup> 이처럼 전적으로 섹슈얼리티로 성격이 규정된 세대 또한 처음이라는 점이 기록될 만하지만, '별 탈 없이' 연애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생애사를 대표하게 된 섹슈얼리티의 서사가 정상성 이상의 초정상성, 그러니까 도달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상(idea)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의미심장한 일이다. 소득수준과 직업의 상태(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은 많은 부분 학력과 학벌이 규정적인 요소이며 학력과 학벌은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한 영향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이상이 실현 가능한 계급적 집단의 실재(reality)를 공공연하게 암시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연애와 결혼과 같은 관계적 행위와 그 관계를 구매 가능한 것=소유 가능한 것(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 무의식의 구조화 내지 제도화를 드러

4) 그 징후 중 하나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가 과거 역사와 현재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현상이다.

5)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책의 첫 장을 '첫 섹스의 경제학 : 동거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국의 10대'로 삼은 이 책의 저자들 또한 10-20대 세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섹슈얼리티 장치에서 그 세대의 위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장의 서술에서 부모에게 연인과 동거를 하겠다고 말하는 10대의 젠더는 남성이라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남성인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10대 여자가 동거를 하겠다고 부모에게 말한다면 이 책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반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낸다는 점이다. 대졸, 정규직에 연봉 2,500만~3,500만 원 정도 되어야 연애(와 결혼)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sup>6)</sup>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무의식이 그 범주에 들지 않는 개개인에게도 어떤 수행-몸값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들을 ‘포기’할 것-를 강제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삼포세대’라는 규정은 그 범주를 실정화하고 자연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회적·정치적 담합(?)의 소산일 수도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사실수리(事實受理)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여하튼 역사적 장치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혼인관계의 장치와 성생활의 장치<sup>7)</sup>는 다른 어느 때보다 소유적 개인주의에 침윤되어 있으며 혼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11~12월, 18~49세 미혼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벌인 후 지난 7월 보고서 『최근 미혼 인구 특성과 동향 : 이성교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거의 모든 일간지와 포털 사이트 뉴스에 삼포세대에 대한 통계적 입증을 한 보고서로 대서특필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 남녀 모두 이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연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의 남성은 45.5%, 여성은 43.1%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력별 이성교제 비율의 상관성이다. 학력별로는 초대졸과 대졸 미혼인구의 이성교제비율 차이는 남성이 약 1%, 여성이 약 2%로 큰 차이가 없지만, 고졸과 초대졸의 사이의 차이는 남녀 모두 약 14%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사상초유의 저출산율에 대한 인구정책적 고려에 의해 쓰여졌다. 출산율이 여성의 ‘출산행동’에 달려있지만 한국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고, 또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구를 출산율 회복의 중심 열쇠로 간주하여 결혼의 관문인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인구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에서 작성되었다. 조성호, 『최근 미혼 인구 특성과 동향 :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월간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7.

7) 푸코적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하나의 역사적 장치로, 육체에 대한 자극·쾌락의 증대·담론에의 선동·지식의 형성 그리고 통제 및 저항의 강화가 지식과 권력의 몇몇 중요한 전략에 따라서 서로 연관되는 거대한 표면 조직망이며, ‘혼인 장치’와 ‘성생활의 장치’로 구성된다. 모든 사회에서 성적 관계가 산출하는 ‘혼인관계의 장치’는, 결혼, 친족관계의 고정과 전개, 성씨 및 재산 상속에 관련한 제도이다. ‘혼인관계의 장치’는 허가된 것과 금지된 것, 규정된 것과 비합법적인 것을 확정짓는 규칙체계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반면에 ‘성생활 장치’란 혼인 장치에서처럼 성적으로 맺어지는 상대들의 회로에 연결되지만 유동적이고 동질이상적이며 정세에 의해

인관계의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sup>8)</sup> 언뜻 성별의 구분이 없어 보이는 88만원 세대, 삼포세대라는 규정은 특히 남성성에 관한 토픽으로 운위된 루저 담론의 증가, 그리고 동시적인 여성혐오의 증가와 관련하여 본다면 다른 어떤 세대론보다 남성 젠더적이다.

최근 진지한 분석의 대상이 된 소위 ‘일베’의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혐오는 그 용어사용의 노골성과 선정성에서, 그리고 그것이 젊은 여성들에 대한 총체적 혐오라는 면에서 특기할 만하지만, 윤보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여성혐오 담론과 그 원인적 배경이 누적된 담론의 형태라고 지적한다. 루저 문화는 신자유주의의 논리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불안이 가중되고 지속되는 젊은 남성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생겨났는데, 이것이 여성혐오라는 특징을 띠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성별분업에 대한 보상체계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과 걸 현상이나 여풍 담론, 골드미스 담론 등이 결합하여 여성을 남성의 경쟁자이자 남성을 착취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경쟁에서의 박탈과 불안의 원인과 분노를 여성에게 투사하

---

좌우되는 권력의 기술에 따라 기능한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의 장치’와 다르다. ‘혼인관계의 장치’는 사회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그 기능이 있으며 여기서 혼인장치와 법 사이에 특권적 관련성이 생기며, 그것의 중요성은 ‘생식’이란 사실에서 유래한다. ‘성생활 장치’는 ‘생식’이 아니라 점점 더 세밀하게 인구를 통제하는 데 존재이유가 있다. ‘성생활 장치’는 ‘혼인 장치’와 관련하여 그것에 기댈으로써 기능했는데, 18세기 동안 가치를 부여받게 된 가족에 기초하여 남편-아내 축과 부모-자식 축이란 두 가지 요소 위에서 전개되었다.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지식의 의지』, 나남, 2004, 115~125쪽 참조.

- 8) 관련 없는 듯하지만, 거의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별범죄’는 연인이나 배우자에 투사된 극단적 소유관념의 소산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이별 의사를 소유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폭력을 가하거나 살인을 함으로써 연인이나 배우자의 신체와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이것은 또한 사회적, 상징적으로 박탈된 남성의 상태나 콤플렉스에 대한 역설적인 표출이기도 하다. 이별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토록 중대사지만 이별을 만류하며 여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란 신체를 상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리력 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흘에 한 건 꼴로 일어난다는 ‘이별살인’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의 극단적 사례일 것이다.

는 논리 속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특히 윤보라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베의 여성혐오 담론이 소비지향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된장녀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 전체에 대한 총체적 거부를 의미하는 ‘김치녀’ 담론으로 전화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성애적 욕망은 여성회원을 허용치 않는 일베의 친밀성의 규칙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금지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거나 ‘탈김치’-한국 여자의 ‘나쁜 습성’을 버린 여성 예컨대, 온순하고 더치페이를 하는 ‘스시녀’라 불리는 일본여성-라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는 자가당착의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이다.<sup>10)</sup>

그렇다고 여기에 억압가설을 도입하고 싶지는 않다. 여성을 제유하고 성 관계를 연상시키는 여성‘성기’로 집중된 다설(多說)의 배설 자체가 동성사회체의 집단화된 성적 욕망의 일부이자 남성지배의 표상적인 실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이는 일베가 추구하는-아마도 ‘우연찮게’ 추구하게 된 대의(cause)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금욕’이나 ‘금욕주의’를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 단식농성에 맞서 지난 8, 9월 광화문 광장에서 벌인 두 번의 폭식투쟁이 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섹스하는 ‘평범한 나날’들의 유예나 단절을 통해 특히 남성 주체들에게 (혁명이라는) ‘비범한 나날’<sup>12)</sup>들을 선사했던 지난 세기 모든 대의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퍼포먼스였는지도 모른다. 자식을 비롯하여 수백의 사람들이 바다 속에 잠겨 죽어

9)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 :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2013, 36~37쪽.

10) 위의 글, 52쪽.

11) 이십여 년 전에 최윤은 소설 『하나코는 없다』(1994)에서 여성들이 공유되고 사라지도록 만드는 남성 동성사회의 메커니즘을 예리하게 묘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령, 『쓰여진 혹은 유예된 광기-최윤은 론』,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278~280쪽 참조.

12) 테리 이글턴은 자본주의의 문학 형식을 자본주의적 일상성을 의미하는 ‘평범한 나날’과 정치적 혁명의 시간들인 ‘비범한 나날’의 조합이자, 경향적으로 후자의 퇴락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바라본 바 있다. 테리 이글턴, 이택광 역, 『자본주의와 형식』, (“Capitalism and Form”, New Left Review14(2002.3~4) 『뉴레프트리뷰』 1(한국어판), 백승욱·진태원·홍기빈 편, 도서출판 길, 2009.

가는 것을 목 놓은 채 지켜보아야 했던 평범한 아버지의 단식투쟁조차 대의를 모방하는 형식인 한 참을 수 없다는. 하지만 먹어치울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것이 대의인 신자유주의를 우연치 않게 모방하게 된 이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한 현실, 즉 제 앞에 먹을 것이 독지가가 기증했을 피자나 초코바밖에 없다는 현실이 위선 없는, 달리 말하자면 염치없는 남성주의와 내셔널리즘(또는 국가주의)을 지속하게 만들 것이다.

## 2. 근대성의 총아로서의 신여성 연구와 딜레마

이러한 시대의 이미지들은 그것과 동시에 대거 산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신여성에 대한 연구를 되돌아보게 만든 문지방이자 프리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들은 두 여성 집단이 여성혐오와 내셔널리즘의 교직 속에서 각각 침묵의 장소가 되거나 다설의 장이 되어왔음을 지각해야 할 역사적 문화정치적 사건으로 부상시켰다. (신여성에 대한 다설의 담론과 위안부에 대한 긴 침묵이라는 비대칭성이 관련 연구에 충분히 의식된 것은 아니었다.) 그 과정은 여성에 대해 말하고 쓰는, 일군의 여성운동가들, 그리고 여성 연구자들의 연이은 등장을 수반했다. 이 현상은 대학도서관에서 여성들에 대한 책은 온통 남성들에 의해서 쓰였으며, 온통 여성들은 동물과 인간의 중간 쯤 되는 기상천외한 존재로 그려져 있음을 발견하고 탄식한 『자기만의 방』의 화자가 간절히 기원했던 여성 고등교육과 그 결실이 20세기를 식민지화로 시작하여 세기말(1996)에는 OECD에 가입하게 된 극동의 위치한 나라에서도 맺어졌음을 뜻한다.

여성에 말하고 쓰게 된 여성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 뻘이었던 식민지 시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방법과 체계를 요구하는 학술적 언어로 썼음에도 분노와 슬픔이 표현되어 있었다. 제목만으로도 생산적인 분노를 자극했던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sup>13)</sup>의 편자인 최정무는 미국 태평양 연안의 고속도로에서 미군이 몰고 오는 군용

차량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매만지고 등을 곳곳이 세우려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이 행동이 미군의 점령지가 된 해방 후의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낸 자신의 몸에 베인 습관이 저절로 살아나온 것임을 깨닫고서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쓴다. 이 분노는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도 한국 여성에게 강요된 순결이데 올리기 때문이라는 데서, 난잡함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까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일제하 및 현재의 ‘군 위안부 여성들’을 불러낸다.<sup>14)</sup> 한편 이번 세기 벽두에 출간된 『인간으로 살고 싶다』의 저자 이상경은 머리말 끝 부분에서 낙백한 나혜석의 목소리를 인용한 후에 “이러한 운명 같은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 화려하고 비장한 삶의 끝에 이르는 것.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나혜석의 선택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 그렇게 시대를 앞서 살아갔던 나혜석이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여성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물음에 답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sup>15)</sup>라고 쓴다. 여기서 ‘인간’은 질적 시간으로서의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던 인권선언의 인간에 가까운 것이겠지만, 한국어 화법에서 이 말이 운위될 때의 어떤 울림과 떨림이 들어 있다. 이 경련은 “여성의 몸과 감성을 지닌 여성/인간”으로서의 경험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가부장제, 식민주의, 민족주의 등에 의해 사회적 배제와 억압, 성적 폭력을 겪었던 여성 정체성이 90년대 이후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와 운동들이 수렴해낸 여성 정체성일 수도 있다. 조주현은 이것을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을 통해 논한 바 있는데,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이 마련해 준 ‘진보성’의 특권이 90년대에 이완되면서 당대 여성운동은 성문화와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통해, 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의 관련 문제로 분열과 대

13) 일레인 김 · 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Dangerous Women, by Elaine H. Kim and Chungmoo Choi. eds. New York: Routledge Press, 1998), 삼인, 2001.

14)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의 책, 23~29쪽.

15) 이상경, 『인형과 인간 사이』,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40쪽.

립을 겪었던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의 이름’으로 연대하여, ‘여성일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연대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16)</sup> 그녀는 한국여성의 정체성은 각 시대의 주도적 담론들의 경합의 효과로서 구현되었다고 주장하며, 전통 대 근대 담론의 경합에서는 ‘신여성’과 ‘구여성’이, 식민대 민족 담론의 경합에서는 ‘현모양처’의 정체성이, 민족민주운동의 담론에서는 ‘노동자여성’이, 근대성의 주체성의 경합에서는 ‘피해자 여성’의 정체성이 등장했다고 말한다.<sup>17)</sup>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근대성’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한국의 학계와 지식인들 사이에 근대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시도가 공감을 이루게 된 현상은 “변혁과 진보의 이념이 퇴장하면서 이념의 공백 속에서 자기 시대의 문화를 묘사하고 기획하려는 지적 노력이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8)</sup>고 지적된 바 있다. 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시대의 기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근대성의 촘촘한 묘사(description),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 주요한 대상은 김진송의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1999)에서부터 (경성의) 신여성이었다. 김경일은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04)에서 “20세기 전반기” “근대 학교 제도나 도시,

16)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진보평론』 7, 진보평론, 2001, 141~144쪽. 조주현이 든 90년대 여성운동 중에서 성문화와 성폭력에 관련된 운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운동(1990.11 정대협 발족), 김부남사건과 김보은·김진관사건 및 그에 대한 노력, 한국성폭력상담소개소(1991),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과 시행(1992~1994), 94년의 용모등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한 기업체 고발 및 여론화, 유급생리휴가 폐지에 대한 대응,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1996)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과 시행(1996~1998)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1999),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명단 공개(2000).

17) 위의 글, 147쪽.

18) 황중연, 『근대성을 둘러싼 모험』, 『창작과 비평』 93, 1996. 겨울호, 215쪽.

소비문화 혹은 스포츠와 같이 신여성은 근대와의 밀접한 관련에서 등장하였으며, 근대의 표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곧 신여성의 표지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신여성은 근대성의 문제의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sup>19)</sup> 그 중 나혜석은 신여성의 대표/표상으로, 논문은 물론 전기적인 단행본, 다큐멘터리, 기념관, 거리, 학회, 학회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공공 문화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붐은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예술에서의 성취와 파격적인 연애와 결혼, 이혼, 이주와 여행, 전략 등 그녀의 역동적인 삶이 매력적이기 때문일 터일 것이다. 특히 나혜석 자신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회적 이목과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임종을 지키는 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데에 관심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혼과 가정생활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제2세대 여성작가들이나 기독교계 신여성들에 대한 관심보다 나혜석을 필두로 한 제1세대 여성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은 아마도 그녀들이 더 ‘위험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sup>20)</sup> 그녀들의 근대적 개인과 삶의 방식에 대한 추구는, 가부장제의 젠더적, 성적 규범을 위반한 것이자 문화적 ‘혼혈’로서 민족 동일성을 헤친 ‘위험한 여성’들이었다.<sup>21)</sup>

19) 김경일, 『책을 읽기 전에』,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7~8쪽.

20) ‘여성문학’ 형성기의 작가들인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문학은 백철, 조연현, 권영민 등의 문학사에서 계몽주의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을 거의 남기지 못한 것으로 취급된 반면, 제2세대 작가들은 ‘문학사’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상으로 등재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양선, 『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제도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사의 형성』, 소명출판, 16~18쪽. 특히 제2세대 여성 작가들 중 몇몇 사회주의계열의 여성 작가들의 안정적인 문단 진입에 대해서는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3, 한국사회사학회, 2012 참조.

21) 오늘날 같은 분위기에서 신여성은 원조 된장녀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넣어 그 결과를 보니, 원조 된장녀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마리앙투아네트이고, 신여성이 원조 된장녀 아니냐는 어느 대학생의 질문이 소속 대학 학생들의 사이트에 질문으로 올라와 있었다.

신여성이 처하게 된 섹슈얼리티의 상태나 곤경은 당대에는 그녀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끌게 한 계기이자 그녀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근대적 제도의 수혜와 상품 소비로 가시화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기존의 삶의 터전과 양식, 규범을 해체하면서 극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식민지 사회의 축도가 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응축된 것으로 표상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는 거래와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담론화, 서사화 되었으며 그 거래와 교환에 그녀들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sup>22)</sup> 이러한 비난은 꼭 실존한 인물의 개인사나 스캔들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반복 강박적이었는지는 신여성이 특정한 사회적 실체를 지닌 집단이거나 그 집단에 속한 신원증명이 가능한 인물들이라기보다 아예 정체성을 정의, 유포를 독점, 전유하려는 지식-권력을 산출하는 담론적 현상이자 효과로 바라보는 시각<sup>23)</sup> 또한 어느 정도 정당하다. 그러나 그 비난은 비난의 주체를 즐겁게 하는 비난이었다는 것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겠다. 신여성 담론은 말함으로써 소유하고 정복하는-그녀의 새로움과 사치와 섹슈얼리티-즐거움과 함께 그 즐거움에 대한 징벌로서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같은 대의의 표명이 결합된 것이었다. 권명아가 『역사적 파시즘』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신여성은 ‘총후부인’이라는 총력전 체제 하의 여성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제국의 황민화 이데올로기에서도 반정립의 대상으로서 유용하게 소환되었다.<sup>24)</sup>

이러한 메커니즘은 1920~30년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천년대의 대중문

22) 여기에 대해서는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23) 잡지 『신여성』 등 매체를 주요한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여성 연구는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시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7.

24) 권명아, 『제2부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역사적 파시즘』, 2005, 157~290쪽, 참조.

화에서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7년 방영된 KBS 드라마 『경성스캔들』(극본 진수완, 연출 한준서)은 당시까지의 연구를 한껏 참조하여 만든 것 같았다. 경성의 모던결과, 모던보이가 모여드는 카페와 스캔들을 제조하는 삼류잡지회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다른 초상을 그리면서 시작한 이 드라마는 후반부에는 친일적 기원을 가진 두 남자 주인공이 총독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일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전반부가 무색할 정도의 과잉된 민족주의 파토스를 보여주었다. 결국에 이 텍스트는 민족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드라마의 즐거움은 비동시성의 문화와 인물이 만화경처럼 펼쳐진 경성의 근대성이었으며, 거기에 도 속하고 비밀결사에도 속하게 된 여성 인물들이 처하게 된 성적 위험이었다. 이러한 즐거움이 민족주의적인 서사로 봉인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없었던 것 또한 사회적 무의식일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알려진 박경원을 모델로 한 영화 <청연>(2005년 개봉, 감독 윤종찬)을 둘러싸고 개봉 전에 이미 ‘최초’와 ‘친일과 영화’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권은선은 실제 영화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지워내는 탈역사화의 서사로 비행장면의 스펙터클과 로맨스를 주요한 서사적, 시각적 장치로 사용했으며, 첨단 근대적 테크놀로지에 도전한 식민지의 신여성이 겪었음직한 젠더 억압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베라는 허구적인 일본 여성인물에게 극중인물인 외무 대신으로 연인인데, 이는 사실 박경원에게 둘러붙은 친일의 표지였던 체신대신 고이즈미의 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전치인 것이다. 게다가 기베는 경원을 음양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친일(영화)논란을 벗어나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sup>25)</sup> 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당대의 저항 민족주의 담론에 깊게 침윤되었”거나 “지배적 담론인 저항 민족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기 검열의 결과이다. 절대적 범주로서 민족주의적 담론이 억압처럼 텍스트에 작용할 때, 텍스트에서 억압된 것은

25) 권은선, 『<청연>: ‘신여성’ 재현에서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경합』, 『영상예술연구』 11, 2007. 참조.

역사적 주체인 신여성 박경원의 행위 주체성이다”, “동시대의 민족주의 담론의 시선 하에서, 반민족적인 함의를 벗어나기 위해 탈역사적인 공간을 상상할 때, 욕망과 시대적 조건이 충돌하는 갈등에서 취한 그녀의 협상, 선택, 행위는 사라지고, 따라서 저항의 지점까지도 함께 억압되고 만다.”<sup>26)</sup>고 비판한다.

‘신여성’은 이처럼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경합”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이 민족주의가 지배적 담론으로 억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언설, 즉 민족주의 비판 담론의 출현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임지현, 1997), 『우리 안의 파시즘』(임지현 외, 2000), 그리고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온 국민국가론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정치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파고든 근대적 주체성의 지배적 형식으로서 ‘민족’, ‘국민’에 의한 동일성의 폭력을 광범하게 비판하는 효과를 산출했다. 소위 저항적 민족주의 즉, 민족해방운동에서부터 1980년대 변혁운동까지 비판의 심문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족주의가 여성에 대한 가시적 비가시적 폭력과 그것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담론을 수반한다고 비판되었다.<sup>27)</sup> 앞에서 언급한 『위험한 여성』은 민족주의 비판 담론이 비등해진 시점에 도착한 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성학’ 측에 의해 제기된 민족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호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진성은 1990년대 이후 민족담론에 비판적

26) 위의 글, 17쪽.

27) 페미니즘, 젠더 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한국의 ‘포스트’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권명아는 한국에서의 ‘포스트’담론-특히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반향이 민족주의 비판이 중심적 의제였으며, 그에 따라 연구영역은 식민지 시대로 집중되는 역사로의 후퇴 현상을 보였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젠더 연구는 현실 개입의 실천적 의제와 무관할 수 없는 주체성 정치로서가 아니라 역사 연구의 새로운 소비항목으로 소비하게 되었으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에 기반한 민족주의 논쟁이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정전’읽기 붐으로 나타나 경계를 넘나드는 연대가 아닌 한국문학의 제도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권명아, 『연대(solidarity)와 전유(appropriation)의 갈등적 역학』,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2 참조.

인 여성학의 경향이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강압에 대항한 주체로서 신여성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는 연구로 이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28)</sup> 송연옥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1930년대의 한국 ‘신여성’』이란 글에서 신여성을 근대성의 표지이자 페미니즘의 선구로 추켜세우는 것에 당대의 연구풍토에 대한 일침을 가한다. 그녀는 1930년대 신여성과 87년 민주화 이후의 페미니즘의 아날로지를 읽어낸다.

“식민지 하에서 저항의 민족주의를 결여한 페미니즘이 근대 가정의 환상에 사로잡혀 제국의 민족주의에 회수되어 간 1930년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져, 미국을 정점으로 한 중층적인 정치 구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활 차원에서 느끼기 어려운 오늘날 한국의 현실”<sup>29)</sup>

위의 인용문에서, 페미니즘은 연대기적 개념이 아닌 질적 시간의 개념인 근대성의 총화로 바뀌 읽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십세기 말 한국의 페미니즘이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사회주의 해체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화된 세계 질서의 억압성을 보고 있지 못함을

28) 정진성, 『제13장 일본군성노예문제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일본군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한울, 2000, 302~304쪽 참조.

29)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1930년대의 한국 ‘신여성’』, 『페미니즘 연구』 1, 한국여성연구소, 2001, 67쪽. 이 글의 모두에서 송연옥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유독 미국은 비껴가고 있는 반면 일본 쪽을 향해 있었으며, 87년 민주화 이후 가부장적 민족주의에 억압되어온 페미니즘은 민족주의 자체가 그 역할을 끝냈다고 인식이 대두되었다고 쓴다. 이러한 현상을 페미니즘을 논하는 여성 연구자 대다수가 미국 유학 귀국자이며, 미국의 이론에 의존해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민족주의가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달리 격렬한 반미 민족주의 성격을 띠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최근 후지이 다케시는 그 근원적 이유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탈식민 국가이기도 하지만 냉전국가라는 점이 작용하며, 이는 특히 미국적인 것이자 보편적인 문명으로 내세워진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 부정의 불가능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藤井たけし, 『ある 『政治學概論』の運命』, 紅野謙介・高榮蘭・鄭根埴・韓基亨・李惠鈴 編, 『檢閲の帝國』, 新曜社, 2014 참조.

비판한다. 신여성 연구 붐에 비판적이었던 정진성과 송연옥이 공히 식민지 시대의 여성의 삶 중 관심에 두었던 것은 일제말기 전쟁에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였으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운동 또한 신여성 연구 붐과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는 당대 문제적인 화두였던 근대성과 민족주의를 각각 할당 받게 되는 담론적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 3. 일본군 ‘위안부’와 그 증언을 둘러싼 해석의 입계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민족주의는 정대협 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누적적으로 불거진 논쟁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대협에 가해진 비판의 핵심은 강제/자발, 처녀/매춘부이란 구도가 각각 조선인 위안부/일본인 위안부로 이분화하여 일본인 위안부를 문제의 시계에서 배제한 것,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성폭력이 아니라 추상화된 민족에 대한 일본의 겁탈로 상징화한 것, 일본의 ‘국민기금’ 수령 문제를 두고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계화하고 배제한 것 등이 결국에는 가부장적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말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럼으로써 투쟁의 대상을 일본(정부)으로 한정하여 당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여성 인권침해로서의 성폭력이나 전시강간 문제 등 현안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고, 연대의 대상을 배타적으로 한정하게 되는 편협함을 보였다는 것이다.<sup>30)</sup> 그 논쟁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필자로서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결과 그 결과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정대협 운동과 관련하여 그 운동의 대의와 명예를 실추시킨 말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정대협 20년사 편찬위원회는 정

30)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대협 운동을 여성인권운동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대협은 지난 20년 동안 정대협의 운동이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을 ‘폭력’처럼 받아왔다. 하지만 정대협이 전개해온 역사적 사실 규명은 식민주의의 폭압, 전쟁의 피해, 여성비하의 잔혹함이 상호교차하면서 형성된 억압적 모습을 드러내고 포착하는 과정이었다. 식민지, 점령지와 일본의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 사실 규명이지만 민족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뇌리에 가득 찬 ‘나쁜 일본 놈’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식이지 민족주의적 허구가 아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비판은 정대협 운동을 슬프게 했지만 약화시키지는 못했다.”<sup>31)</sup>

정대협 운동을 추동한 것은 성폭력 등에 대한 여성운동의 당대적 관심의 일환으로서만은 아니었으며 그 모든 이슈를 정대협 운동이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80년대 성장해 온 여성운동 없이 이 운동은 결코 촉발될 수 없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제기된 과거 청산 과제 중 하나인 식민지 유제 청산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학순의 증언으로 획기적인 시작을 알린 정대협 운동은 탈식민화의 실천이며, 따라서 탈식민화 실천이 지닐 수밖에 없는 성격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탈식민화의 실천은 제 동족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 이름이 살아간 피식민의 경험과 역사를 서술하는 자기언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가장 유력했던 탈식민 실천 중 하나인 친일파청산에서 친일파를 적시하는 일은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일본인 식민자들, 식민화의 기구, 정책, 실천의 대체물 혹은 상징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자기언급적 성격은 식민-피식민 관계의 경험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식민지 지배는

3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21쪽.

국가기구와 제도, 정책, 무엇보다 폭력을 독점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피식민자들은 가진 것 없는 맨 몸의 상태로 그것을 경험한다. 피식민 상황이란, 해당 민족 전체가 이민족의 식민지배기구, 정책, 식민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생활경험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식민자라는 구속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으면서 형성되며, 이 경험은 단지 의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물리적, 신체적 지각경험에 의해 구성된다. 피해의 기억이 별도의 정치적,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면 가해의 기억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는데, 옛 식민지 모국의 민족이나 국민은 자신을 일상적 생활경험 속에서 자신을 가해자이거나 지배자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식민 개인 하나하나의 식민지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이 민족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식민지 모국의 개인 하나하나가 지배를 지배의 경험으로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지배민족을 대표한다는 인식 또한 어렵다. 식민지에 주재하며 식민지 원주민과 대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찰이나 식민지 관리들은 해방 이후 자신들을 징치하려는 조선인들이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벌인 재판에서, 자신들은 국가의 직무를 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던 것이다. 일본인들은 패전 후 자국의 법에 의해서만, 패전국 국민으로서 승전국들이 차린 법정 하에서만 원고-그것도 식민지배가 아니라 전쟁범죄에 관해서만-로 설 수 있다고 강변하였던 것이다. 이런 식의 비대칭성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다. 즉, 1945년 8월 15일은 피식민자들에게는 식민자와의 관계의 극적이고 전복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해방을 의미하지만, 식민자가 이 사건과 자신의 운명을 두고 마주보아야 할 대상은 피식민 민족이 아닌 승전국과 연합군이었던 것이다. 결국 식민자의 명단 작성은 불가능하며 그러할 때 탈식민화의 실천을 위해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리켜야 할 대상은 제 동족이자, 일본정부일 수밖에 없다.<sup>32)</sup>

생존 피해자들의 극적인 등장만이 아니라 그들의 명부의 작성, 구술 증

32) 이 단락의 내용은 이해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1~19쪽 참조.

언의 집적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시기와 방법, 그 규모, 전장으로의 이동과 인원의 배치 방식, 위안소의 운영 방식 어느 정도까지 추정 가능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좀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구술 증언이 마치 신여성 나혜석의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과 감성을 지닌 여성/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주체성을 서술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자신과 연관하여 인식하고 해석하는 지식의 구성 행위<sup>33)</sup>라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감성을 지닌 여성/인간”으로서의 경험을 세상과 관계 속에서 다르게 등록시키는 것이 여성주의적 지식 산출이라고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의 첫 증언자 김학순의 증언, 나아가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또한 지식 산출 행위였다. 김학순은 자기 언급적(self-referential) 실천을 통해, 익숙한 통념의 세계를 낯설게 만드는 지식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그녀들이 여성/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주체성을 서술하는 데 ‘민족’을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거의 반세기 가까이 지난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대신할 섹슈얼리티를 고백하는 장소나 대상이 고해소의 신부 앞이나 의사 앞도 아닌, 또한 (남성) 보호자의 동반도 없이 신문지상이거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든 기자 회견장이었다는 사실은 스쳐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상상의 공동체들”<sup>34)</sup>이 그녀들이 최초로 택한 고백의 장소이자 대상, 고백의 조건이었

33) 김은실,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2008 참조. 김은실은 나혜석의 근대적 개인, 자아의 주체성 구성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혜석은 초기에 보편적인 인간/사람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주체성으로 보았지만 결혼 이후 성차를 지닌 체인 여성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경험론적 인식론적 실천을 추구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나도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선언보다 주목받지 못한 ‘나는 여자다’라는 선언은, ‘회의되어질 수 없는 궁극적인 조건인 몸을 지닌 여성/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이다.

34)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1991년 8월 14일 행해진 김학순의 증언은 공히 한국만이 아니라 과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여 위안부를 만들어낸 일본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복수이다. 잘 알려졌듯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개념이다.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표현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던 듯한 책이었다.”(Josep Llobera, The God of Modernity : the Development of

다. 많은 이들의 지적처럼 가부장제와 민족주의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고백의 대상을 ‘민족’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들은 증언행위에 의해 민족을 스스로 형성하게 되었다. ‘민족’이란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와 같은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계를 초월한, 그런 관계들보다 우선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때 그 소속됨을 선언할 수 있다. 증언자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증언 당시에도 독신인 상태가 많았다. 즉 오랫동안 가족이나 친지 등의 관계들과 절연하거나 소외되어 있었던 상황이 역설적으로 증언을 결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다른 한편 증언 행위는, 위안부 경험 때문에 가족적 유대의 절연과 함께 결혼에 제약을 받아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적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수평적 동료관계라고 상정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경험되었다.

증언의 내용들이 민족담론으로만 포섭되지 않는 진술이 뒤엉킨 것이라는 시각 또한 제시된다. 민족담론으로만 포섭되지 않는다는 진술의 내용은 주로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모면하기 위해 딸을 팔았던 가부장적 통념에 빠져 있던 식민지 조선인들, 위안부 모집에 앞장섰던 조선인 업자들과 면장이나 이장, 경찰과 같은 식민지 행정권력의 말단들의 공모 행위, 귀국 후 개별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다기한 섹슈얼리티 등이

---

Nationalism in Western Europe, Berg, 1994, p.103, 닐 데이비슨,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비평』, 『마르크스21』 7, 책갈피, 2010, 279~278쪽에서 재인용) 이는 한국에서 마찬가지로었는데, 특히 민족 형성에 있어 근대 인체자본주의의 산물인 신문과 소설을 언급한 주장은, 문학연구자들에게 널리 인용되었다. 여기서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간명한 정의, 즉 민족은 자체로 제한되어 있으면서 주권을 갖춘 것으로 상상되는,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에 덧붙인 설명을 제시한다. 즉 경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어느 민족도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 왕이나 귀족과 같은 신성한 정통성이 국민의 주권으로 대체되었을 때 민족은 생겨나며, 민족은 그 내부에 수직적이고 불평한 관계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평적인 연대를 전제한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19~28쪽.

그것이다.<sup>35)</sup> 그러나 식민-피식민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위안부가 된 계기나 원인, 그리고 귀국 후의 삶의 양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그 진술의 다기한 내용들은 모두 위안부 경험의 증언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진술된 것이다. 공동체를 향한 증언, 증언을 통한 공동체로의 소속됨이라는 왕복적인 실천이 그 모든 진술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가? 상상의 공동체를 향한 왕복적 실천이기에 기생학교에 자신을 판 의붓아버지, 일본인보다 더했던 조선인 업자들, 자궁이 썩어나간 몸쓸 병과 유산, 불임의 경험, 일본군 아이를 낳은 것, 일본군 장교와의 사랑,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 결혼과 그것이 소문이 돌아 남편에게 모진 학대를 당한 것 등 까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자들은 그녀들의 증언이 민족주의적으로 유도된 채 이루어졌거나 어떤 할머니의 경우 민족주의 프레임에 정향되도록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이러한 주장은 증언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을 넘어 마치 증언자들을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주체성을 스스로 정립할 수 없는 주체로 간주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여하튼 증언자들의 증언에 공통된 것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무참한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민족담론이나 민족주의로 포섭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렇게 고쳐 써야 할 것이다. 위안부 증언자들은 ‘상상의 공동체들’이 오랫동안

35) 위안부가 된 동기나 원인에 있어 피식민 조선인의 ‘협력’에 대해서는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참조 ; 귀국 후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주체성에 대해서는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60, 2001 참조.

36)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을 낳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정대협이 간행한 증언집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인용하고 있지만, ‘위안소’에서의 군인에 의한 성적 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만큼은 좀처럼 인용하지 않은 채 쓰였다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책의 저자는 그 경험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괄호 친 한에서 ‘위안’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과잉 도덕화된 일본 제국주의의 명명법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부’나 ‘위안소’ 또한 마찬가지로 폭력과 잔혹함, 전쟁동원 명분의 허구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위선적 명명이었다.

동안 망각하거나 부인한 것을 기억하는 여성의 몸과 감성을 지닌 여성/인간의 출현이었다. 그녀들의 증언은 민족주의의 임계를 시험하고 있지만, 이 뒤늦은 시험과 관련하여서 규명되고 추적되어야 할 것은 식민주의가 섹슈얼리티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정대협이 민족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 중 같은 민족의 남성에 의한 성폭력이나 성매매보다 이민족 남성에게 의한 그것 중 후자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주장<sup>37)</sup>은 좀더 역사적 맥락화에 입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대협이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제국의 남성에게 의한 식민지 여성의 성적 침해로 상징되거나 표상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식민화가 식민자-피식민자 간의 성적 침해나 성적 관계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는 충분히 추적되어야 한다는 제언은 좀처럼 제기되지 않았다. 공창제의 이식이나 전개과정, 그것에 의한 사창의 만연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지만,<sup>38)</sup> 여전히 ‘매춘’ 또는 ‘성매매’라는 카테고리 속에서만 연구되고 이해되는 제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싸고 그 역사적 연원으로서의 공창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위안부 제도를 성매매 제도로 이해할 것인가는 위안부 모집의 주된 시기,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차이를 고려할 때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조선인 위안부와 매춘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면, 공창제 연구도 일본군 위안부 연구도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는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37) 구체적인 논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정란, 앞의 논문, 95~96쪽 참조.

38) 대표적으로는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4.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에 대한 제언

식민지 국가의 개입 없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이러한 지배의 실천<sup>39)</sup>이 시사하는 바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식민자인 일본인과 관련하여 성생활 장치로 유입되었으나 조선인 여성은 혼인관계 장치에서는 주의 깊게, 암묵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화의 상징으로 홍보되거나 내선일체의 권장할 만한 실천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받았던 내선결혼의 양상은, 이은의 결혼이 상징하듯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더욱 확인해진다.<sup>40)</sup> 역사적 장치로서의 식민지 섹슈얼리티는 식민지-제국이 창출한, 종족적 구성이 불가피하게 이원적인 사회의 생활세계의 인종화된 배치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친밀성을 둘러싼 인종화된 언설과 정치의 차원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시기에 이른 것 같다.

39)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식민지 국가와 일본군의 다양한 개입 양상에 대해서는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식민성 연구-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강정숙은 군관의 총칼에 잡혀가는 조선인 위안부 상은 역사적인 진상에 맞지 않지만, 위안부의 모집과 운송수단에 의해 국경을 넘는 것이 필요했던 전장으로의 배치, 위안소의 운영에는 일본 정부와 식민지 정부, 군의 실제적인 개입이 필요했으며,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다양한 논거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40) 1920년 4월에 거행된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족 이방자의 내선결혼 다음 해인 1921년 6월에 ‘내선인통혼법안(內鮮人通婚法案)이 총독부령 99호로 성립된다. 내선결혼 건수는 1912년에 116건이던 것이 1925년에는 404건이었다. 善生永助 편, 『朝鮮の人口現象』, 朝鮮總督府, 1929, 314쪽. 그러던 것이 1928년에는 40건, 1931년에는 52건 등 100건을 넘지 않다가 황국신민화 정책이 절정에 이르던 때인 1940년에는 137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으로 이주하여 살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혼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1938년에는 811건, 1941년에는 1,258건, 1942년에는 1,418건이었다. 내선결혼의 절대다수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간의 결혼이었다. 카세타니 토모오(総谷智雄), 『재한일본인처의 형성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4, 26~27쪽. 물론 이러한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을 통해 등록된 관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분제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양식과 문화의 이식을 수반했던 식민화의 심화 속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매춘의 확대가 혼인과 가족, 성적 욕망 등 섹슈얼리티에 어떤 변동을 야기했는가와 같은 물음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성적 접촉이란 문제가 놓여 있었다. 갈수록 많은 조선인 여성이 공창과 사창에 유입되었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남성은 ‘내지’ 일본인 남성보다 평균 2배 가까운 비용을 대좌부(貸座敷) 이용에 썼다.<sup>41)</sup> 신여성의 조건으로 간주된 중등교육을 받고 있던 조선인 여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조선인 여성들이 광범위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sup>42)</sup> 어쩌면 생활세계에서 만나거나 소식을 접해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신여성들이라기보다는 고향과 집을 떠나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 이웃이나 친지의 딸들이었다.

시린 M. 라이는 식민지에서 “생존을 위한 성매매 때문에 그 여성들은 취약하고 잊혀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는 사회의 회색 영역으로 내쳐졌으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가 “성매매 여성들이 반드시 민족주의 엘리트 남성들의 즉각적인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여성들이 대개 하층계급이거나 신분의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 여성들에게 그들이 보인 관심은 민족적 정서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징표일 수 있을 것”<sup>43)</sup>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경우

41) 박정애, 위의 논문, 123~127쪽 참조. 박정애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인 등루객은 조선인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는데, 이를 인구비율로 따져보면 1917년 현재 재조 일본인 남성 3.38명 가운데 1명이, 조선 남성 0.24명 가운데 1명, 1929년에는 재조 일본인 남성 1.77명 가운데 1명이, 조선남성 0.012명 가운데 1명이 대좌부를 이용하였다. 206쪽.

42)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일의 책, 54쪽, <표 1>전체 여성 인구에 대한 고등여학교 재학생 수의 비율과 박정애의 논문(2009)의 124쪽, 165쪽에 각각 <표 4-2> 1916~1935 사이 접객여성 추이, <표 5-3>전시체제기 접객여성 추이 비교해 볼 것. 예컨대 1920년 고등여학교학생수는 709명이었으며, 조선인 창기수는 그 수의 두 배인 1,400명이었다. 전시체제기의 초기인 1937년 고등여학교 학생수는 7168명(전체 여성인구의 6.71%, 1937년 조선인 여자인구는 10,685,423명)이었는데, 해당 시기 조선인 창기/예기/작부/카페 여급 수는 총독부가 집계한 인원은 9,621명이었다.

43) 시린 M. 라이, 이진옥 역,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민족

에도 해당된다. 예컨대,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을 알린 이광수의 『무정』은 식민지화의 과정 속에서 식민지 법에 의해 성매매 여성으로 재범주화된 ‘기생’ 영채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주의 서사를 창출한다.

이광수가 기생을 관통해서야 상상의 공동체를 제시하는 대중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구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생’이 오래도록 식민지 여성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성 집단으로 재현되었는가의 문제와 관련 있을 터인데 그녀들은 조선의 전통과 그 퇴락을 상징하는 존재이어서도 그러했지만, 그녀들은 식민지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화 이전부터 존재해온 재래의 ‘매춘’ 여성으로 간주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손쉬운 표현의 영역으로 취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식민주의자에 의해서도 ‘기생’은 식민지 원주민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에 있어 해롭지 않은 이들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많은 한글매체들과 문학작품을 읽어온 연구자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기생에 비해 식민화에 그 발생적 기원을 유곽의 여성은 좀처럼 서술성을 부여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누가 그녀들의 성적 대상이였는가는 모호하게 처리되어 왔다는 것을. 간단히, 일본인과 조선인의 성적 접촉을 그리는 것은 극도로 금기시되었다. 그것은 ‘추문’을 꺼려하는 식민주의 때문이기도 했다. 신여성에 대한 다설(多說)과 요철(凹凸)을 이루고 있던 것은 이 영역이 아니었을까? 이는 더 파헤쳐야 할 사회적 실체가 있음은 물론 사회적 실체들이 각기 할당받은 표현의 영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말해준다.<sup>44)</sup>

자주 비교가 되는 인도나 중국의 신여성 담론<sup>45)</sup>에서보다 식민지 조선

주의와 지구화』, 후마니타스, 2014, 52~53쪽 참조.

44) 필자는 식민지 원주민이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자일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바 있는데, 식민지 검열기록은 식민지 원주민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자가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해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동방학지』 16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12.

45)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는 김수진, 위의 책, 『7장 신여성 현상의 역사유형론적 비교』, 401~449쪽 참조.

의 신여성 담론에서 신여성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녀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것으로 재현되었으며 그녀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서양문물에 열광하는 문화적 혼혈아로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환금성을 띤 것으로 재현되었다. 이러한 신여성의 표상은 그 표현이 금기시된 영역까지 덮여쓴 표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환금성이야말로 서로 다른 종족 간의 성적 접촉을 간접화하는 상징적인 매개물은 아니었을까? 나는 1920년대 초중반 소설에 등장하는 하층민 요부형 여성이 베일을 벗은 신여성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다음의 가정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적 혼혈아인 신여성은 식민자와의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환유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그녀들이 갈구했던 자본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과 향유로 표현하고, 그 원인을 식민화나 가난이 아니라 그녀들이 그릇되게 수용한 근대적 지식과 의식의 탓이나 나아가 유전적 소인으로 돌리는 장치, 즉 간접화의 방식이나 식민주의를 민족주의적으로 전유하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일본인과의 성적 접촉을 환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여성이 식민지 자본주의의 총아로 표상되었던 사정에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신여성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 이상의 속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속내는 종족적으로 이원화된 식민지 사회에서, 또한 해외로의 이주와 이민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대에서 친밀성의 영역이 어떻게 재편되어 갔는지에 대한 진전된 연구를 통해 추적될 수 있다. 이러한 탐문은 또 다른 세계화의 시대인 오늘날 시민권을 얻은 가족만을 포섭하는 담론인 ‘다문화’ 한국사회에서 섹슈얼리티의 인종적, 계급적 정치경제를 되묻는 과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157~290쪽.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7~8쪽, 54쪽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7, 401~449쪽.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0, 16~18쪽.
- 김향 · 이해령, 『인터뷰 : 한국 인문학의 지각변동』, 그린비, 2011, 136~137쪽.
-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그린비, 2010, 176~183쪽.
- 데니스 올트먼, 이수영 역, 『글로벌 섹스』, 이소출판사, 2003, 85~110쪽.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I-지식의 의지』, 나남, 2004, 115~125쪽.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17~91쪽.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19~28쪽.
- 시린 M. 라이, 이진옥 역,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민족주의와 지구화』, 후마니타스, 2014, 52~53쪽
- 우석훈 · 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1~328쪽.
-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40쪽.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 2007, 253~270쪽.
- 일레인 김 · 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23~29쪽.
-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한울, 2000, 302~304쪽.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21쪽.

### 2. 논문

-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의 식민성 연구-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0, 1~309쪽.

- 권명아, 『연대(solidarity)와 전유(appropriation)의 갈등적 역학』,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167~203쪽.
- 권은선, 『<청연>: ‘신여성’ 재현에서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경합』, 『영상예술연구』 11, 2007, 85~104쪽.
- 김은실,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2008, 147~186쪽.
-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1~219쪽.
- 김주리, 『여성주의 연구방법과 한국근대소설 속 새로운 자아의 탐색』, 『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71~98쪽.
- 박이은실,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sexuality study) 재/구축을 제안하며』, 『여/성이론』 25, 여성이론연구소, 2011, 65~106쪽.
-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217쪽.
-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1930년대의 한국 ‘신여성’』, 『페미니즘 연구』 1, 한국여성연구소, 2001, 53~73쪽.
-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60, 2001, 60~96쪽.
- 이영아,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41~69쪽.
- 이혜령, 『친일파인 자의 이름 : 탈식민화와 고유명의 정치』,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1~45쪽.
-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 『동방학지』 16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3, 229~257쪽.
-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3, 한국사회사학

회, 2012, 5~47쪽.

조성호, 「최근 미혼 인구 특성과 동향 :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월간 보건 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7, 14~23쪽.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진보평론』 7, 진보평론, 2001, 126~148쪽.

황종연, 「근대성을 둘러싼 모험」, 『창작과 비평』 93, 1996. 겨울호, 212~230쪽.

藤井たけし, 「ある『政治學概論』の運命」, 紅野謙介・高榮蘭・鄭根埴・韓基亨・李惠鈴 編, 『檢閲の帝國』, 新曜社, 2014.

## Abstracts

### New Woman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Thresholds

-Retrospecting Studies on Colonial Sexuality in the Ruins of Pastoral Capitalism-

Lee, Hye-Ryoung

This paper's purpose is to retrospect studies on colonial sexuality after the 1990s, being concerned with temporality of the 1990s and the present. Nostalgia for the 1990s has been spread by TV drama <Answer! 1997>, <Answer! 1994> in which described that times when capitalist social environment was reconciliated with individual growth which was expressed through heroine and hero in the drama coming up to Seoul to enter university, romantic love, getting a job and marriage with first beloved. In this paper, I called the time consciousness of the 1990s as the pastoral capitalism, which proved impossible, considering the discourse on Sampo generation[삼포세대] who gives up romantic relationship, marriage and childbirth owing to economical condition. The misogynic discourse of Ilbe Storage[일베저장소], website of having anti-leftist, anti-feminist and right-wing tendency, reveals homo social and nationalistic feature.

Studies on new women and comfort women in colonial period of Korea have begun in the 1990s. The rise of feminism was developed into curriculums of universities and popular cultures, which was prompted by democratization and liberalism of Korea around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 In that same times, deconstruction of communist nations in the Western World forced

the social landscape of post capitalism to be articulate in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texts with erasing pursuits for historical cause based marxism.

The boom of studies on modernity of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reached its peak in studies on new woman, in which new woman was described in heroine of modernity characterized by individualism and enjoyment of commercial culture of colonial capital Keijo [京城]. Many of scholars criticized on the negative discourse of new woman in the colonial period in reason of their behaviors not to meet nationalist cause. Of course, most of scholars were female intellectuals educated and teaching at universities. New woman became a representative representation of modernity and trans-nationality from the 1920s to the early 21th. On the other hands, comfort women became a nationalist representation, although a lot of feminists criticized that comfort woman movement leaded by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ave made the representation as pure girls in sexual. However, it needs to accent the fact that repetitive testimonies of comfort women tended to "imagined community" and that various contents of which didn't satisfy with nationalist representations and narratives could also be told by listening to request to tell the painful experiences as comfort women. The fact it needed a long temporal gap for them to able to tell the experiences suggests to ne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colonialism and sexuality. Study on colonial sexuality need to reconstruct intimacy in the colonial society into the ra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Key words : Sexuality, New Wome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olonial Sexuality, Pastoral Capitalism, Neo-Liberalism, Ilbe Storage, the 1990s, Nationalism, Modernity, Racialization of Sexuality, Intimacy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